

2013

『내가 한국 바로 알리기의 주인공』 에세이 당선작 소개

접수: 2013.9.1. ~ 2013.9.30.

■ 주제1: 「외국에서 보는 한국 이미지」부문

- ① 외국 교과서 속의 한국 이미지에 대한 생각
- ② 외국에서의 한국 이미지 제고 방안

■ 주제2: 「한국 이해자료」부문

- ① 이해자료 활용의 활용 후기
- ② 한국 이해자료 개발에 대한 제안



한국 이해자료 개발에 대한 제안 주제2

<“한국 전통 어린이 민담집(동화책)” 중국어버전 시리즈>

저는 한국어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학생입니다. 한국문화를 바로 알기 위하여 저는 평소에 한국의 문화에 관한 책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한국인의 구수한 옛이야기를 기록한 구전설화집 읽기를 즐깁니다. 제가 읽은 설화집은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집』(평안북도 편, 경상남도 편), 그리고 『조선야사집』 등이 있습니다. 비록 읽는 과정에서 고유어가 있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옛이야기들은 참으로 재미있었습니다.

민담은 말로 된 구비문학입니다. 구비문학은 말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일회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담은 수 천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전승을 통해서 발전해왔습니다.

이러한 민담이 전승, 정형화 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공동 신앙이 민담의 구조에 영향을 미쳤기에 다양한 전승 계통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우렁각시’와 중국의 ‘田螺姑娘’는 내용면에서 부분적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익숙한 친연성을 근거로 하여 중국어권의 어린이 독자들은 그 책을 통해서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한국 전통 문화의 원형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문화영역에서 서로 협력하고 발전하면서 친근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한류”는 이미 수많은 대중들의 마음속에 “최신 유행”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점점 더 많은 일선의 연예계 스타들이 중국어를 배워 중국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중국 대중들의 엄청난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중에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이란 나라를 알려고 공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건이 주어진 중국에서 한국의 전통 민간문화를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한국의 전통 민담집”을 어린이 동화로 각색, 중국어로 번역 출판하여 더욱 많은 중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연히 저는 중국의 한 서점에서 중국어로 편역된 『황구연 민담집』, 『김덕순 민담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김동훈, 허휘훈, 허경진 편역으로 된 『김덕순 민담집』은 한국 보고사에 의해 출간되었습니다. 민담집에는 “동령왕전설”, “목동과 선녀”, “복두칠성”, “고려장”, “우렁각시”, “장생불로초” 등의 민담 73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담집은 한국어를 배우는 소수의 학생이나 일부 전문가 외에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중국어로 편역된 『황구연 민담집』, 『김덕순 민담집』을 보다 대중성을 갖는 그림 동화책 중국어버전 시리즈 기획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적이고 쉬운 동화 내용으로 각색하여 번역하기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 동화책은 『그린 동화』와 『언데르센 동화』입니다. 사실 중국의 구전설화에도 재미있고 교육적인 동화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대령공주(黛翎公主)를 아는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저는 『그린 동화』와 『언데르센 동화』가 중국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 많은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민국 시기부터 중국의 번역가들이 외국의 동화책을 번역하여 중국에서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동화책의 독자층은 보통 어린이들이지만 깊이 따져보면 자식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종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자층이 넓어지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문화홍보 관련기관에서는 현재 외국 동화책이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원인을 인식하고 중국 실정에 맞는 출판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제가 『김덕순 민담집』에서 찾은 구절을 동화버전으로 수정해 보았습니다.

민담집 - 今天开荒, 明天下种,

到了秋后, 打下粮食,

一粒粮食, 一滴汗珠,

打下粮来, 又给谁吃?

-- 《田螺姑娘》

오늘은 황무지를 개간, 내일은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 다가오면, 양식을 거둬드리니라.

한알의 밥알은 한 방울의 땀이라,

거두어 온 양식은 누구에게 먹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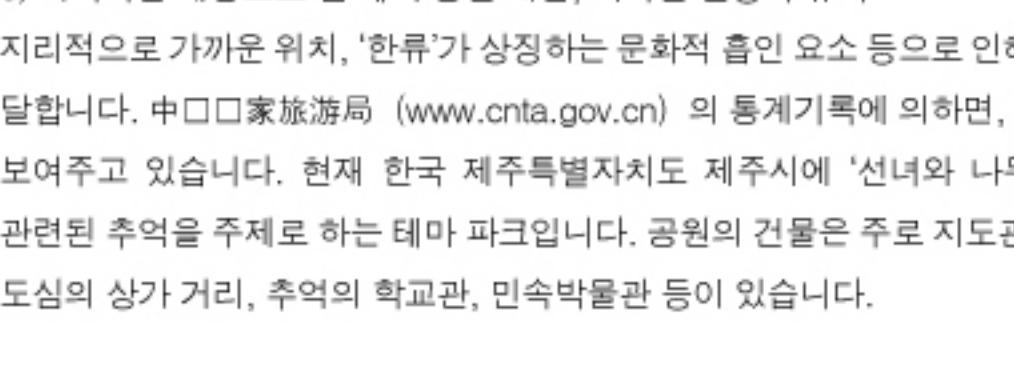
동화 버전으로 각색 -

我这么辛苦干活, 种出来的粮食要跟谁吃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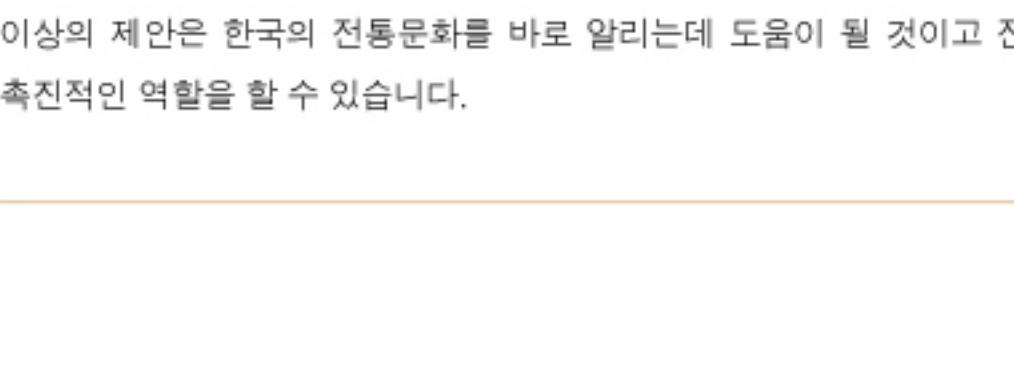
이 농사지어서 누구랑 먹고 사나?

2. 해당 내용의 그림 삽화 넣기

어린이용 동화책이므로, 내용에 적절한 한국 전통의 그림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이야기 책에는 구체적인 그림 자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림으로 나타낸 표상들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의 옛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꽁쥐와 팔쥐’와 같은 그림에서는 한국의 전통주택 모양, 의복, 호랑이 형상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선택할 때 한눈에 이것은 한국의 전통 그림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를 선택하여 수많은 어린이 독자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어버전으로 출판 할 때 책의 컬러 선택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오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중 87%는 시각을 통해 얻어지는데, 이중 80%는 색채에 의한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컬러 파랑색, 봄이 연상되는 노랑색, 영혼의 순수함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하얀색 등 보다 명랑한 색상을 선택하여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사고력,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동화내용(중국어)



동화내용(중국어)



동화내용(중국어)

동화내용(중국어)

기획 안의 추가적인 활용 방안

1) <한국문화교류센터> 웹하드 구축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로서 책보다 시각적 효과를 둘릴 수 있는 영상자료가 더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네트워크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도 극복하여 전세계 어디서나, 어느 곳의 누구와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한국문화교류센터> 홈페이지 (http://www.ikorea.ac.kr/index_kor.html) 웹하드에 탑재된 한국의 민담을 소재로 한 DVD 동영상을 올리고 또한 인터넷에서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템포가 빠른 베이징, 상해, 광주, 심천과 같은 도시에는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개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담을 소재로 한 중국어버전 만화영화를 스마트폰 어플에서 다운받아 즐겨볼 수 있도록 개발하면 광범위한

중국의 어린이 독자층을 형성하여 그들의 정서함양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중국어권에 수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중국의 시청자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상품은 문화가치와 상품가치가 공존하면서 시장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류의 열풍에 힘입어 문화산업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문화상품시장의 규모확대를 한·중 경제교류의 새로운 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3)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테마 공원 개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 ‘한류’가 상징하는 문화적 흡인 요소 등으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매년 상당수에 달합니다. 中口家旅游局 (www.cnta.gov.cn) 의 통계기록에 의하면, 2011년에 200만명을 넘어서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선녀와 나무꾼 테마공원’이 있는데 주로 1950~1980년대 관련된 추억을 주제로 하는 테마 파크입니다. 공원의 건물은 주로 지도관, 옛 장터 거리, 추억의 영화 마을, 달동네 마을, 도심의 상가 거리, 추억의 학교관, 민속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이상의 제안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바로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전세계에 ‘한류’ 외의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는데 촉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제2 장려상

글 | 심경숙

북경대학교 대학원생

(활동 국가: 중국)